
YANOLJA
RESEARCH

BRIEF
VOLUME.3

yanolja research

CONTENTS

Issue

서울 Airbnb 시장 분석 01

Appendix

주요 경제지표 11

연구원 소식 13

Issue

서울시 에어비앤비 시장 분석

Key Findings

- 2023년 4월 기준 서울시 내 13,945개의 에어비앤비 리스팅 등록
- 관광지와 상업지구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전체 서울시 리스팅 중 약 62%가 마포구, 중구, 강남구, 종로구, 용산구에 밀집
- 2022년 서울시 에어비앤비 거래액 1,507억원, 누적 거래액 9,854억원
- 2022년 서울시 에어비앤비 예약건수 59만개, 누적 예약건수 402만개
- 국내 에어비앤비 시장은 2022년 이후 팬데믹 이전수준으로 회복중, 특히 2021년 대비 2022년 크게 성장
- 호스트 1인이 평균 2.72개의 리스팅을 관리하고 있으며, 6개 이상 리스팅을 관리한다고 응답한 멀티유닛 호스트들이 서울시내 전체 리스팅의 60.4% 관리
- 전국 에어비앤비 거래액에서 서울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44.8%에서 2022년 13.3%로 감소하는 추세
- 2022년 12월 기준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서울 지역의 객실수는 17,257개, 뉴욕은 53,292개, 런던은 106,752개
- 2022년 기준, 서울 숙박객실의 18.7%, 뉴욕 숙박객실의 27.4%, 런던 숙박객실의 41.5%가 에어비앤비 객실인 것으로 집계 (뉴욕과 런던 2023년 3월 기준)
- 2022년 기준, 서울시 에어비앤비의 평균객실당가(ADR)는 104,797원, 객실점유율(OCC)은 56.1%, 객실평균요금(RevPAR)은 58,791원

조사설계

- AirDNA의 국내 에어비앤비 월별 데이터
- 런던과 뉴욕 소재 에어비앤비와 호텔 데이터는 Purdue University 산하 Center for Hospitality and Retail Industry Business Analytics 제공
- 분석기간: 2014년 6월-2023년 4월
- 서울시 에어비앤비 숙소의 경우 에어비앤비 웹사이트에 등록되어 있고 해당월에 예약일 수가 하루 이상이거나 예약가능일이 하루 이상인 active listing만 분석대상으로 포함하였으나, 런던과 뉴욕 소재 에어비앤비 숙소의 경우 위치 정보 기반으로 수집한 데이터로 inactive listing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 거래액 및 ADR, RevPAR 산정 시 ADR이 1만원 미만이거나 3백만원 이상인 리스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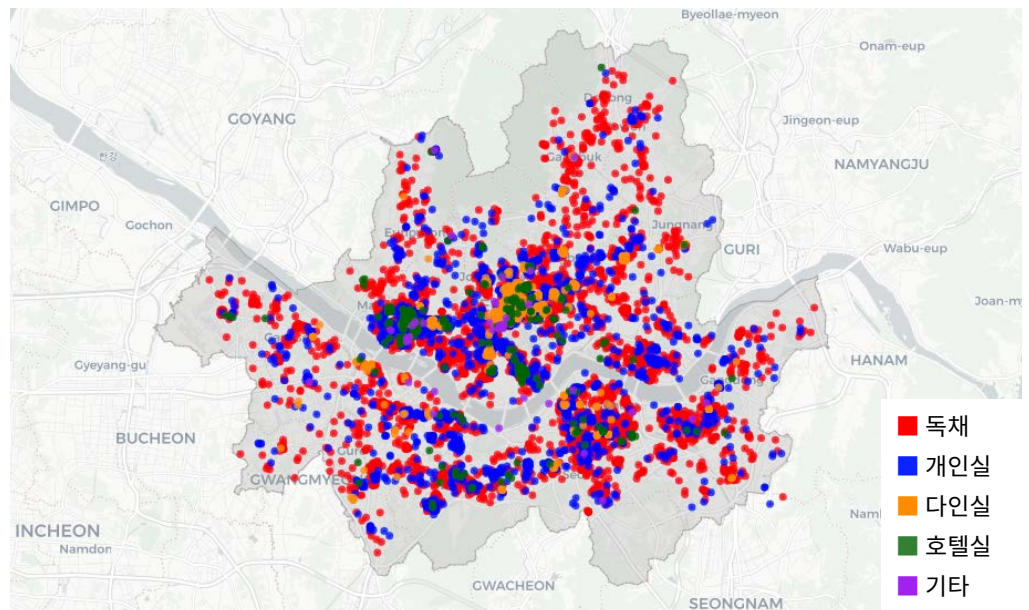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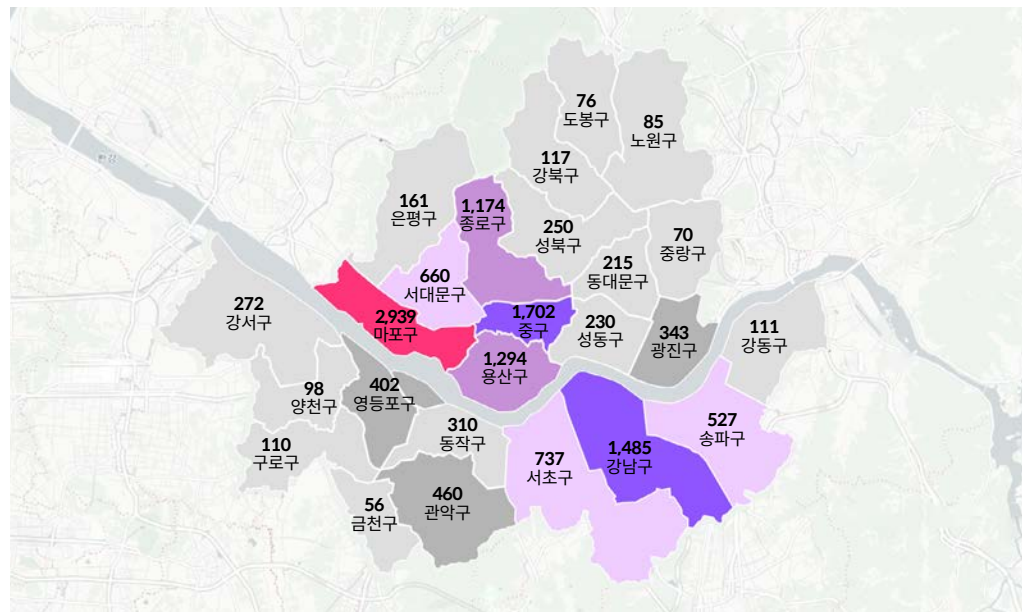
1. 서울시 에어비앤비 시장 현황 (2023년 4월 기준)

01-1. 서울시 에어비앤비 자치구별 분포도

자치구별 에어비앤비 리스팅 분포도

마포구, 중구, 강남구 등 관광지와 상업지구 중심으로 에어비앤비 숙소 밀집

- 2023년 4월 기준 서울시 내 13,945개의 에어비앤비 리스팅 등록
- 그중 61.6%에 해당하는 8,594개가 도심과 상업지구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마포구, 중구, 강남구, 종로구, 용산구에 밀집
- 홍대상권의 관할구인 마포구는 전 세계 도시 중 에어비앤비 개인실 예약증가율 1위¹



주: 해당 분포도의 대화형 시각화 지도는 CHRIBA 에어비앤비 대시보드에서 확인 가능 (<https://purduechriba.shinyapps.io/AirbnbDashboard/>)

¹ 출처: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50314501010637>

1. 서울시 에어비앤비 시장 현황 (2023년 4월 기준)

01-2. 서울시 에어비앤비 자치구별 숙소성과지표

자치구별 에어비앤비 리스팅 분포도

마포구는 리스팅수와 객실점유율이 가장 높았으며, 종로구는 평균객실단가가 가장 높음

- 2023년 4월 기준 서울시 평균객실단가(ADR)는 113,812원, 객실점유율(OCC)은 72.6%, 객실평균요금(RevPAR)은 82,628원
- 2023년 4월 기준 가장 높은 객실점유율을 기록한 자치구는 마포구, 중구, 종로구 순이며 평균객실단가 기준으로는 종로구, 중구, 서초구 순

카테고리	리스팅수	평균객실단가(ADR)	객실점유율(OCC)	객실평균요금(RevPAR)
마포구	2,939	122,979	79.9%	98,260
중구	1,702	126,741	79.5%	100,759
강남구	1,485	121,194	68.3%	82,776
용산구	1,294	119,324	74.4%	88,777
종로구	1,174	146,068	78.4%	114,517
서초구	737	124,877	71.2%	88,912
서대문구	660	98,437	66.5%	65,461
송파구	527	115,202	65.7%	75,688
관악구	460	57,749	64.0%	36,959
영등포구	402	93,746	71.3%	66,841
광진구	343	87,739	71.5%	62,733
동작구	310	48,693	72.1%	35,108
강서구	272	74,311	62.6%	46,519
성북구	250	86,345	55.5%	47,921
동대문구	215	78,871	68.7%	54,184
성동구	230	107,925	52.5%	56,661
은평구	161	109,847	56.5%	62,064
구로구	110	70,217	69.3%	48,660
강동구	111	90,343	66.5%	60,078
강북구	117	68,104	57.1%	38,887
양천구	98	81,547	55.2%	45,014
도봉구	76	72,970	73.9%	53,925
노원구	85	74,453	62.0%	46,161
중랑구	70	112,305	58.1%	65,249
금천구	56	58,281	73.4%	42,778
미분류	61	108,198	53.0%	57,345
총합계	13,945	113,812	72.6%	82,628

주: ADR과 RevPAR 산정 시, ADR 만원 미만이거나 삼백만원 이상인 리스팅 제외
 평균객실단가(ADR): 판매된 객실의 평균 가격
 객실평균요금(RevPAR): 이용 가능한 객실당 평균 매출액
 객실점유율(OCC): 판매된 객실수 / 이용가능한 객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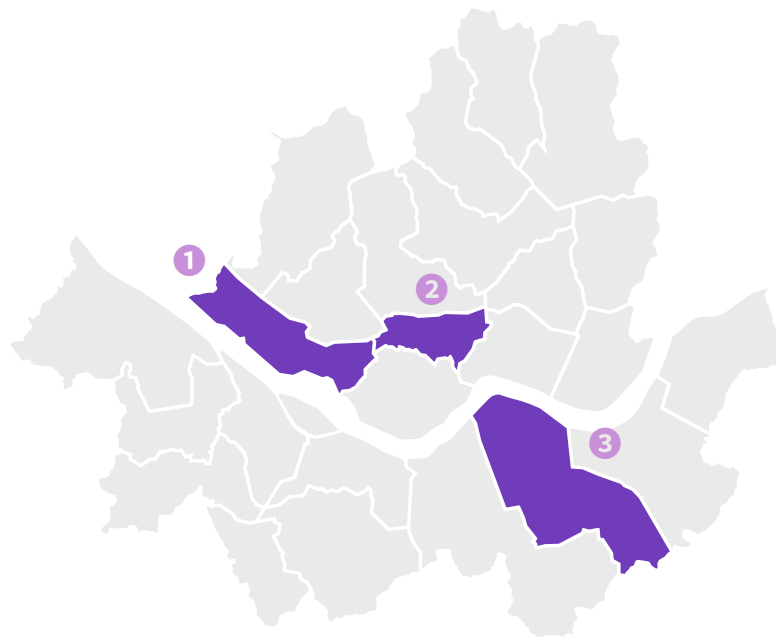
1. 서울시 에어비앤비 시장 현황 (2023년 4월 기준)

01-3. 서울시 에어비앤비 주요 밀집 지역

상위 3개
에어비앤비
밀집 지역

홍대, 명동, 강남, 종로 등 관광지와 상업지구 중심으로 에어비앤비 숙소 밀집

- 2023년 4월 기준 상위 3개 에어비앤비 밀집 지역: 마포구(2,939개), 중구(1,702개), 강남구(1,485개)
- 마포구, 강남구에 비해 상업지역 비중이 높은 중구에 게스트하우스, 호텔과 같은 개인실 타입 숙소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기준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비중: 마포구 7.4%, 중구 41.9%, 강남구 5.7%²



		리스팅 타입	ADR	OCC	RevPAR
1 마포구 리스팅수 2,939개		독채	150,976	81.4%	122,915
		개인실	65,490	77.9%	51,004
		다인실	34,164	69.3%	23,674
		호텔실	160,292	79.8%	127,985
		전체	122,979	79.9%	98,260
2 중구 리스팅수 1,702개		독채	150,154	81.2%	121,978
		개인실	104,390	79.5%	82,948
		다인실	39,623	64.4%	25,528
		호텔실	147,974	66.7%	98,718
		전체	126,741	79.5%	100,759
3 강남구 리스팅수 1,485개		독채	139,779	69.5%	97,144
		개인실	61,757	69.0%	42,598
		다인실	39,071	22.8%	8,890
		호텔실	109,417	45.4%	49,686
		전체	121,194	68.3%	82,776

■ 독채 ■ 개인실 ■ 다인실 ■ 호텔실

² 출처: 서울시 용도지역 현황 통계 (<https://data.seoul.go.kr/dataList/244/S/2/datasetView.do>)

2. 서울시 에어비앤비 시장 추이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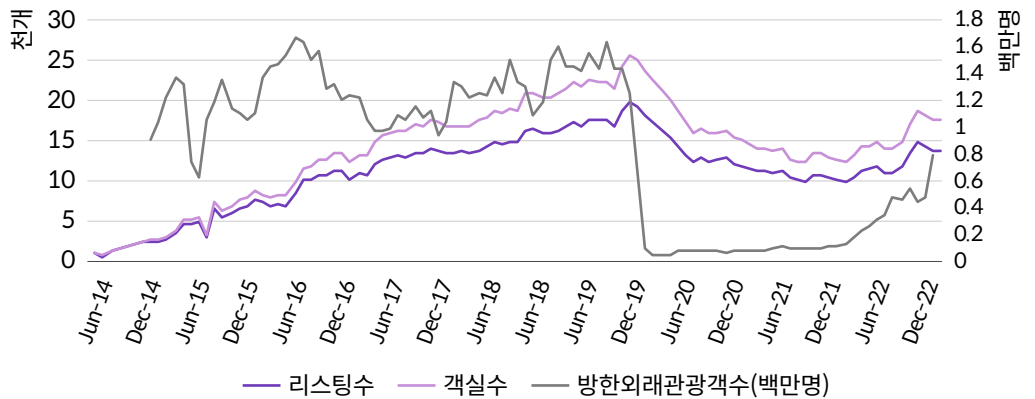
02-1. 서울시 에어비앤비의 공급 추이

서울 에어비앤비 리스iting 및 객실수

서울시 에어비앤비 리스iting과 객실수 코로나19 팬데믹 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서울시내 에어비앤비 리스iting수는 2023년 4월 기준 13,945개, 객실수는 17,886개로 집계되었으며 그 수가 최고치였던 시기는 2020년 1월로서 리스iting수 20,174개, 객실수는 25,982개로 집계
- 코로나19 발발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수와 국내 출장자수가 급감함에 따라 서울시 에어비앤비 리스iting수 역시 2021년 1월 기준 12,904개로 전년 동월 대비 50.3% 감소

서울시 에어비앤비 리스iting 및 객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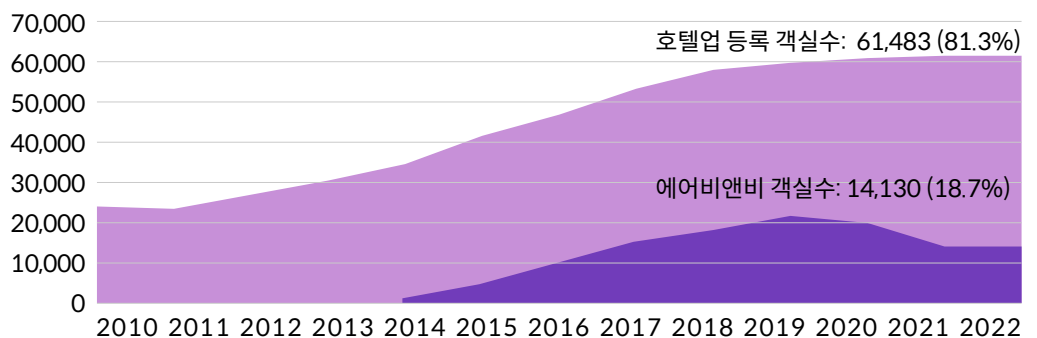
주: 리스iting수는 호스트가 등록한 숙소의 개수를 의미하며 객실수는 등록된 숙소들의 방 개수를 더한 값임

호텔 객실수와 에어비앤비 객실수 비교

2022년 기준 에어비앤비가 서울 숙박시장의 약 1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12월 기준 호텔업에 등록된 서울 호텔 객실수는 총 61,483개, 서울 에어비앤비 객실수는 연평균 약 14,130개로 나타남
- 에어비앤비 객실이 서울 숙박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4.0%에서 2022년 18.7%로 증가함
- 2014년부터 2022년 에어비앤비 객실수는 연평균 46.7%, 호텔 객실수는 같은 기간 연평균 7.5% 증가함

서울시 호텔 객실수와 에어비앤비 객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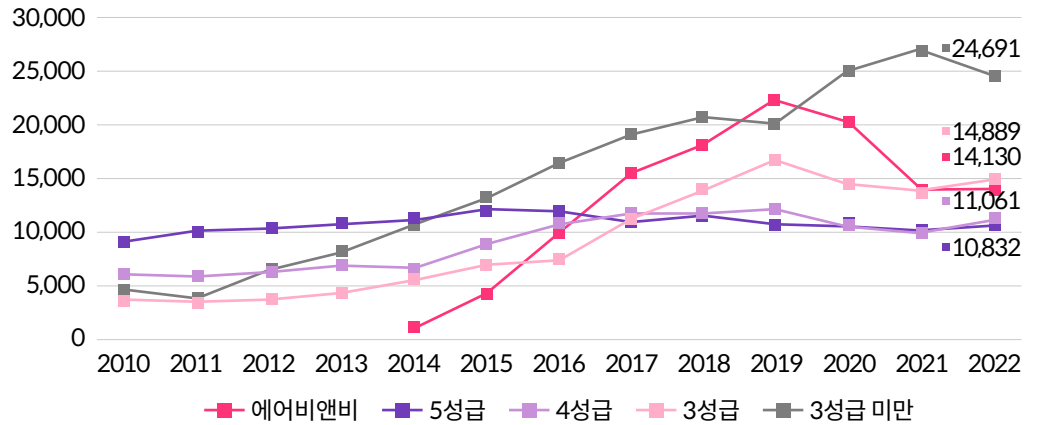
주: 호텔 객실수는 호텔업에 등록된 호텔 객실수 ■ 호텔 객실수 ■ 에어비앤비 객실수

에어비앤비와
호텔 성급별
객실수 추이

에어비앤비 객실수와 3성급 미만 호텔의 객실수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함

- 호텔 객실수의 성장 속도는 3성급 미만, 3성급, 4성급, 5성급 호텔 순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14.6%, 12.0%, 5.1%, 1.3%
- 서울 에어비앤비 객실수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32.5%로 성장
- 3성급 미만 호텔과 에어비앤비 객실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5성급과 4성급 호텔 객실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

서울시 에어비앤비와 호텔 성급별 객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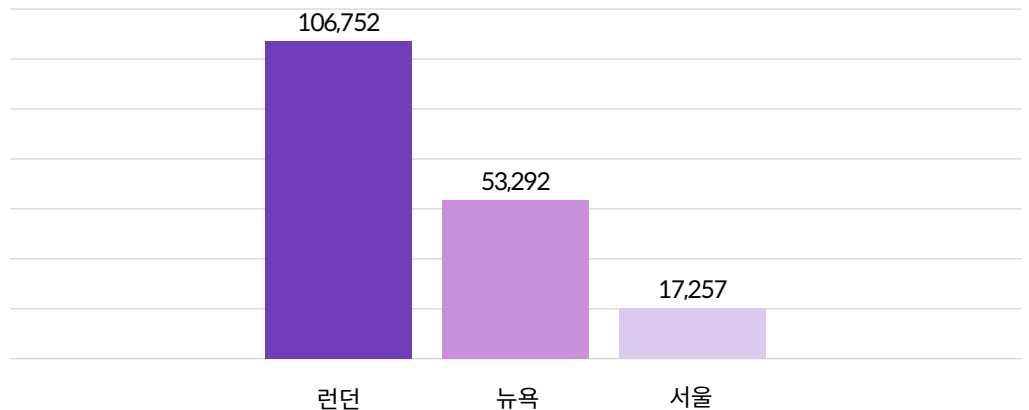
02-2. 서울, 런던과 뉴욕의 에어비앤비 시장 현황 비교

도시별
에어비앤비
객실수 비교

에어비앤비 객실수는 런던, 뉴욕, 서울 순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음

- 2022년 12월 기준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서울 지역의 객실수는 17,257개, 뉴욕은 53,292개, 런던은 106,752개
- 서울시내 에어비앤비 객실수는 런던의 16.2%, 뉴욕의 32.4%에 불과
- 서울 에어비앤비 객실수는 active listing만 포함인 반면, 런던과 뉴욕 리스팅은 위치 정보에 기반해 수집한 데이터로 inactive listings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런던, 뉴욕, 서울의 객실수 비교 (2022년 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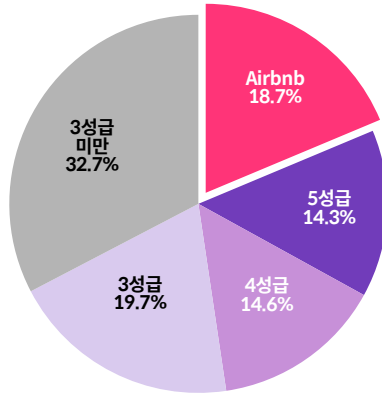


서울, 뉴욕, 런던
호텔 객실과
에어비앤비
객실 비교

전 세계에서 에어비앤비 개수가 제일 많은 런던, 숙박객실의 41.5%가 에어비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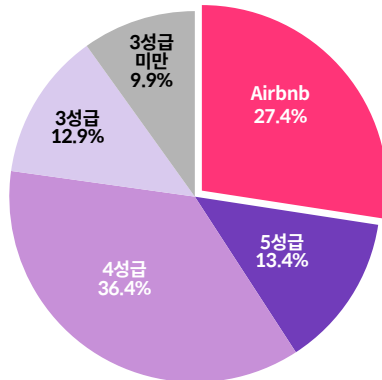
- 2022년 서울 숙박객실 중 18.7%가 에어비앤비 객실인데 반해 런던은 41.5%, 뉴욕은 27.4%가 에어비앤비 객실 (서울은 22년 평균, 뉴욕과 런던은 23년 3월 기준)
- 뉴욕과 런던에 비해 서울은 4, 5성급 호텔 비중은 낮고 3성급 미만 호텔의 비중이 높음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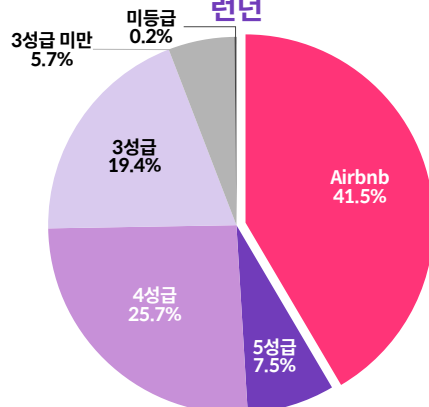
카테고리		객실수
에어비앤비		14,130
호텔	5성급	10,832
	4성급	11,061
	4성급	14,899
	4성급	24,691
	소계	61,483

뉴욕



카테고리		객실수
에어비앤비		54,646
5성급	Luxury	26,706
4성급	Upper upscale	32,161
	Upscale	40,317
3성급	Upper midscale	25,672
4성급	Midscale & Economy	19,729
호텔	소계	144,585

런던



카테고리		객실수
에어비앤비		108,591
호텔	5성급	19,645
	4성급	67,175
	4성급	50,767
	4성급	14,881
	미등급	435
호텔	소계	152,903

주: 서울 호텔 객실수: 호텔업에 등록된 숙소의 연도별 총 객실수
 서울 에어비앤비 객실수: 2022년 active listings의 월평균 객실수
 뉴욕 에어비앤비 및 호텔 데이터 출처: Inside Airbnb, STR (CHRIBA Insight Vol. 3 2차 인용)
 런던 에어비앤비 및 호텔 데이터 출처: Inside Airbnb; londonhotels.it; OTA websites (Trip.com, Expedia, and Bookings.com) CHRIBA Insight Vol.4, 2차 인용
 런던과 뉴욕 리스팅은 위치 정보에 기반해 수집한 데이터로 inactive listing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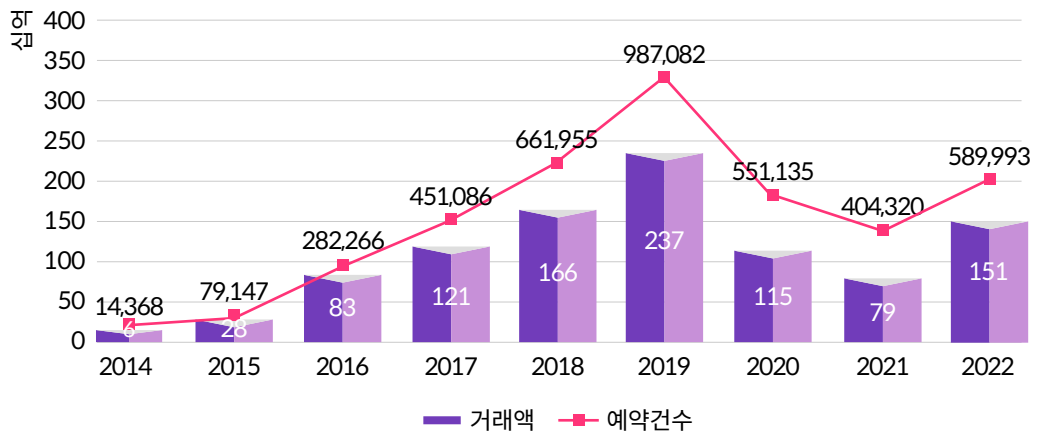
3. 서울시 에어비앤비 예약건수와 거래액 추이

서울 에어비앤비 예약건수와 거래액

팬데믹으로 감소한 서울시 에어비앤비 거래액과 예약건수는 회복하는 추세

- 2022년 서울시 에어비앤비 시장의 총거래액은 1,507억원, 예약건수 59만건
- 예약건수와 거래액 2014년부터 2019년도까지 연평균 133.0%, 106.8% 속도로 성장하였으나 팬데믹 이후 급감하였음
- 2019년 거래액 2,373억원 대비 2021년 거래액은 약 789억원으로 66.8% 하락하였으나 2022년도 다시 회복하며 전년대비 91.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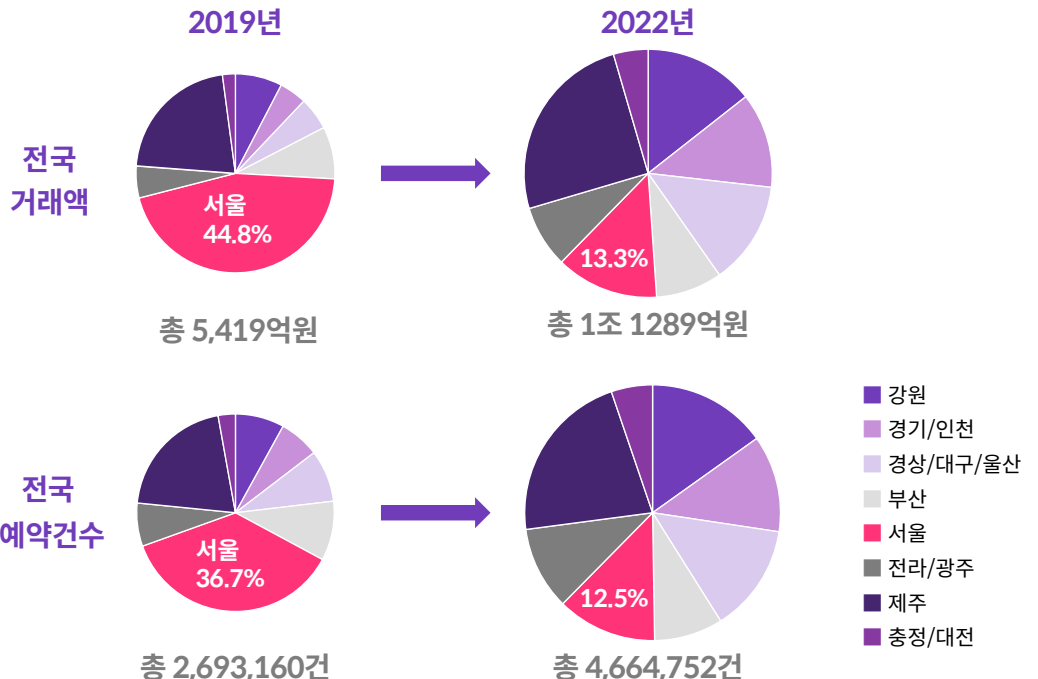
서울시 에어비앤비 리스팅 및 객실수 추이



전국 지역별 거래액과 예약건수 비교

전국 거래액과 예약건수에서 서울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

- 2019년에는 전국 거래액의 44.8%가 서울에서 이루어졌지만 2022년 13.3%로 감소
- 전국 예약건수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36.7%에서 2022년 12.5%로 감소
- 2022년 거래액과 예약건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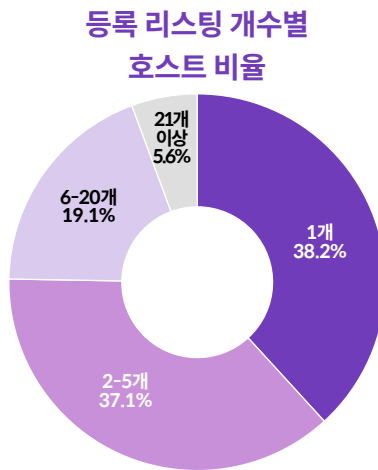


4. 서울시 에어비앤비 호스트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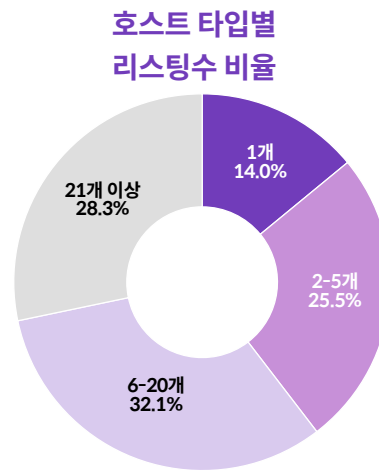
등록 리스팅수에 따른 호스트 분포

서울시 두개 이상의 에어비앤비 리스팅을 관리하는 멀티유닛 호스트 비중 61.8%

- 2023년 4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에어비앤비 호스트 수는 총 5,124명
- 6개 이상 리스팅을 관리한다고 응답한 호스트는 전체의 24.7%이며, 이들이 서울시 에어비앤비 리스팅 중 60.4% 관리
- 호스트 1인이 평균 2.72개의 리스팅 관리



서울시 전체 호스트수: 5,124



서울시 전체 리스팅수: 13,945

탑5 호스트

호스트	리스팅수
E**	146
S**	47
S**	46
O**	26
S**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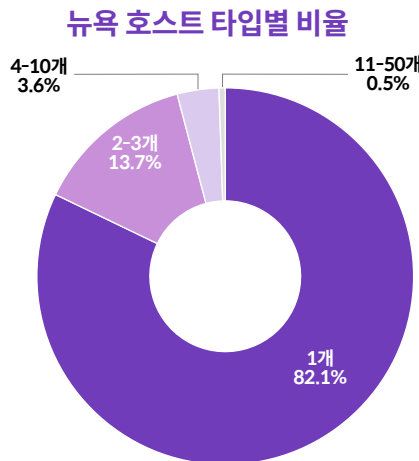
출처: AirDNA 웹사이트

주: 23년 4월 기준 액티브 리스팅을 보유하고 있는 호스트만 분석대상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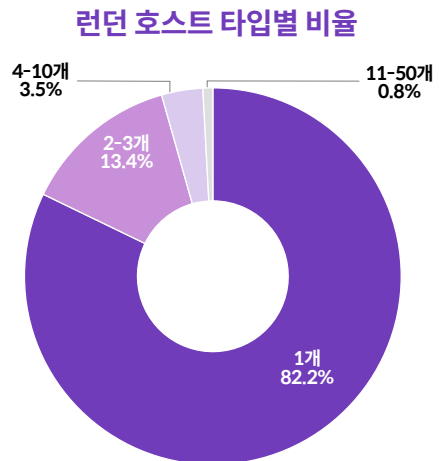
뉴욕과 런던 호스트 분포

뉴욕과 런던은 싱글 유닛 호스트가 전체의 80% 이상 차지

- 싱글 유닛 호스트 비중이 38%에 불과한 서울과 달리 뉴욕과 런던은 그 비중이 80% 이상
- 뉴욕의 경우 호스트 1인이 평균 1.56개의 리스팅, 런던은 호스트 1인이 1.58개의 리스팅 관리



뉴욕시 전체 호스트 수: 27,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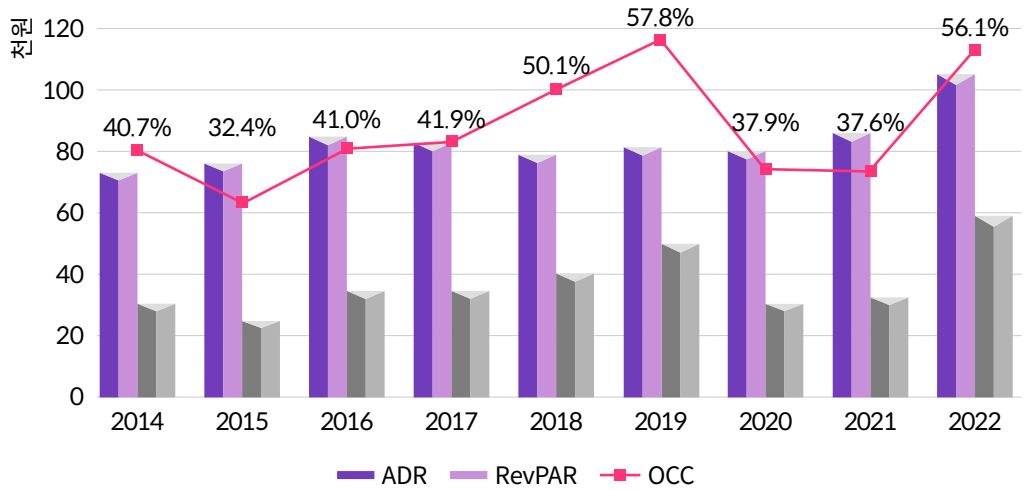
런던시 전체 호스트 수: 47,619

5. 평균객실단가/객실점유율/객실평균요금 추이

서울 에어비앤비
평균객실단가,
객실점유율,
객실평균요금

서울시 에어비앤비 객단가와 객실점유율 2022년 최고 기록 갱신

- 평균객실단가는 2014년 73,469원에서 2022년 104,979원으로 연평균 4.5% 성장
- 객실점유율은 2019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다가 2020년 코로나19 발발과 함께 19.9%p 하락하였으나 2022년 56.1%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근접하게 회복
- 객실평균요금은 2014, 2015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3-4만원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 평균객실단가와 객실점유율의 동반 상승으로 58,791원으로 급상
- 2023년 2-3분기엔 팬데믹으로 눌러있던 전 세계 여행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시 에어비앤비 객실점유율과 평균객실단가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ADR	73,469	75,400	83,759	82,873	79,345	81,293	80,134	86,048	104,797
OCC	40.7%	32.4%	41.0%	41.9%	50.1%	57.8%	37.9%	37.6%	56.1%
RevPAR	29,902	24,430	34,341	34,724	39,752	46,987	30,371	32,354	58,791

주: 평균객실단가, 객실평균요금 산정 시, 평균객실단가만원 미만, 삼백만원 이상 혹은 월예약일수가 0인 리스팅 제외
 평균객실단가(ADR): 판매된 객실의 평균 가격
 객실평균요금(RevPAR): 이용 가능한 객실당 평균 매출액
 객실점유율(OCC): 판매된 객실수 / 이용가능한 객실수

Appendix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통계명	세부항목	2018	2019	2020	2021	2022	22.03	22.04	22.05	22.06	22.07	22.08	22.09	22.10	22.11	22.12	23.01	23.02	23.03	23.04			
경제일반	경제성장률	실질GDP성장률(%)	29	22	-07	41	2.6		07(Q2)			03(Q3)			-04(Q4)			03(Q1)						
		민간소비증감률(%)	32	21	-48	37	4.3		29(Q2)			17(Q3)			-06(Q4)			05(Q1)						
	경기종합지수	선행지수	942*	960*	1000*	1062*	1087*	1077	1080	1085	1089	1090	1090	1091	1093	1095	1096	1094	1094	1093	1093			
		동행지수	983*	997*	1000*	1038*	1083*	1077	1076	1078	1080	1085	1091	1093	1093	1093	1089	1084	1082	1088	1097			
		후행지수	950*	978*	1000*	1037*	1095*	1077	1081	1085	1090	1090	1097	1103	1108	1113	1118	1124	1128	1129	1131			
경기동향	기업경기실사지수	종합	941*	908*	815*	1014*	940*	1021	99.1	97.2	96.3	92.6	86.9	95.8	89.6	86.7	85.4	88.5	83.1	93.5	93			
		비제조업	969*	936*	842*	1006*	961*	99.3	104.6	102.0	99.3	95.1	91.4	94.8	91.1	89.7	87.3	90.3	85.1	95.7	90.5			
		여가/숙박 및 외식	-	-	-	99.5*	89.7*	66.7	114.3	111.1	87.5	100.0	90.0	66.7	111.1	88.9	90.0	85.7	77.8	88.9	120			
	업종별 기업경기실사지수	전산업	78*	73*	65*	84*	82*	88	83	86	87	82	79	82	79	76	74	70	68	71	73			
		숙박업	78*	70*	30*	48*	85*	67	70	84	95	110	102	95	102	91	98	78	71	68	69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전산업	87.8*	83.6*	70.7*	77.8*	82.7*	84.9	84.7	87.6	86.1	81.5	78.5	83.2	85.1	82.3	81.7	77.7						
		숙박 및 음식점업	87.7*	82.0*	60.7*	57.8*	80.9*	63.5	76.8	95.0	94.1	96.7	84.7	80.5	86.2	90.0	95.9	80.1						
	소비자동향조사	소비자심리지수	104*	99*	88*	103*	96*	104	104	103	97	86	89	92	89	87	90	91	90	92	95			
		소비지출전망	108*	108*	97*	108*	111*	114	114	116	114	112	110	109	110	107	108	110	112	110	110			
		여행비 지출전망	91*	91*	80*	89*	92*	93	95	97	94	93	91	93	92	89	92	91	91	91	92	97		
		교양/오락/문화생활비 지출전망	94*	90*	71*	86*	93*	93	101	104	99	92	87	91	91	89	90	90	91	91	94	93		
		외식비 지출전망	93*	91*	83*	92*	94*	96	98	100	96	91	92	92	91	89	91	90	90	90	91	94		
	산업별 서비스업생산 지수	총 지수	1006	1020	1000	1050	1120	1108	1107	1128	1142	1121	1121	1132	1135	1134	1268	1098	1077	1177				
		숙박업	1502	1497	1000	1113	1391	1033	1287	1428	1515	1592	1594	1431	1613	1440	1484	1272	1322	1265				
		음식점 및 주점업	1207	1194	1000	1007	1167	1015	1161	1279	1220	1289	1254	1164	1236	1172	1277	1121	1109	1193				
산업별 생산지수	서비스업	100.63*	101.93*	100.00*	105.09*	112.24*	109.60	111.80	112.20	112.30	113.20	114.10	114.50	114.10	113.30	115.00	115.10	114.80	115.8					
	숙박·음식점	124.37*	122.94*	100.01*	101.78*	119.31*	105.51	120.62	123.19	123.71	125.93	125.18	125.23	124.37	122.81	120.56	120.81	129.98	125.19					

*본 지수는 통계치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평균값이 아닌 아놀자리서치에서 월 또는 분기의 개별지수를 자체적으로 계산한 평균값으로 해석상의 유의를 요함

- 1) 경제성장률 : 한국은행, 전기 대비 성장률(%)
- 2) 경기종합지수 : 통계청, 2020년 기준으로 100을 상회하면 추세 이상의 성장, 하회하면 추세 이하의 성장
- 3) 기업경기실사지수 :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연구원, 100 이상(미만)이면 다음 달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업체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더 많은(적음)을 의미, 2021년 이전에는 '여가/숙박 및 외식'을 조사하지 않음
- 4) 업종별 기업경기실사지수 : 한국은행, 0-200의 값을 가지며 100보다 클 때는 긍정적 시각의 기업 수가 부정적 시각의 기업 수보다 많다는 의미
- 5)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 중소벤처기업부, 100이상(미만)이면 다음 달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업체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더 많은(적음)을 의미
- 6) 소비자동향조사 :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지수는 소비자의 심리를 반영한 심리지표로써 200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는데 기준치는 100,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크면(작으면) 평균적인 경기상황보다 나은(나쁨)을 의미
- 7) 산업별 서비스업 생산지수 : 통계청, 불변지수, 2020년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 생산성 증가, 이하이면 생산성 하락
- 8) 산업별 생산지수 : 통계청, 2015년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 생산성 증가, 이하이면 생산성 하락

주요지표	통계명	세부항목	2018	2019	2020	2021	2022	22.03	22.04	22.05	22.06	22.07	22.08	22.09	22.10	22.11	22.12	23.01	23.02	23.03	23.04
물가	소비자물가지수	총 지수	9909	9947	10000	10250	10771	10606	10685	10756	10822	10874	10862	10893	10921	10910	10928	11010	11038	11056	1108
		호텔숙박료	10891	10651	10000	9982	10871	9524	10061	10540	10362	12062	12354	11038	11568	11333	11634	11351	10730	10827	11421
		여관숙박료	10128	10143	10000	9839	10164	9994	9984	10011	10080	10197	10285	10275	10446	10416	10467	10458	10486	10498	10589
		콘도이용료	10121	10229	10000	9986	10243	9296	9379	9525	9323	10688	13122	10003	9883	9402	10667	11530	10164	9888	9999
		휴양시설이용료	8199	8436	10000	10265	10858	9835	9935	10282	10579	12696	13359	11099	10809	10494	10870	10877	10716	10595	10764
	생산자물가지수	총 지수	10348	10350	10303	10960	11878	11670	11859	11943	12010	12044	11998	12006	12068	12029	11979	12025	12046	12058	
		숙박서비스	10532	10441	10025	9980	10591	9682	9973	10256	10153	11296	11858	10677	10992	10784	11155	11140	10608	10620	
		호텔	10400	10182	9559	9559	10409	9120	9633	10092	9921	11549	11829	10569	11076	10851	11140	10869	10274	10367	
		여관	9960	9976	9835	9687	10014	9846	9836	9863	9931	10046	10133	10123	10292	10262	10312	10303	10331	10343	
		휴양콘도	11496	11604	11344	11383	11712	10629	10724	10891	10660	12220	15004	11437	11300	10751	12197	13184	11621	11307	
노동과 임금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업률(%)	38	38	40	37	29	30	30	30	30	29	21	24	24	23	30	36	31	29	28
		고용률(%)	607	609	601	605	621	614	621	63	629	629	628	627	627	627	613	603	611	622	627
관광	관광수지	관광수지 전체(백만달러)	-13066.10	-8515.60	-3175.30	-4328.60	-5297.30	-287.60	-382.00	-431.20	-489.40	-594.60	-556.00	-301.60	-335.20	-588.30	-837.90	-1158.30	-856.50	-569.8	
		관광수입 전체(백만달러)	18461.80	20744.90	10181.10	10622.50	11781.40	933.50	875.10	970.60	973.40	818.40	1088.90	1,127.50	1,306.70	1,125.10	1,089.80	865.50	955.30	1,200.3	
		관광지출 전체(백만달러)	31,527.90	29,260.50	13,356.40	14,951.10	17,078.70	1,221.10	1,257.10	1,401.80	1,462.80	1,413.00	1,644.90	1,429.10	1,641.90	1,713.40	1,927.70	2,023.80	1,811.80	1,770.1	
	출입국관광통계	국민 해외관광객(천명)	28,695.98	28,714.25	42,760.1	1,222.54	6,554.03	145.50	2,152.5	3,159.5	4,128.0	6,740.2	7,021.5	6,199.5	7,734.8	10,414.3	13,933.4	17,823.1	17,248.8	14,721.93	
		방한 외래관광객(천명)	15,346.88	17,502.76	2,519.12	967.00	3,198.02	96.77	1,279.2	1,759.2	2,277.1	2,639.9	3,109.5	3,376.4	4,761.0	4,599.1	5,392.7	4,344.3	4,792.5	8,005.75	
환율	환율	미국 USD	1,100.30	1,165.65	1,180.05	1,144.42	1,291.95	1,221.03	1,232.34	1,269.88	1,277.35	1,307.40	1,318.44	1,391.59	1,426.66	1,364.10	1,296.22	1,247.25	1,270.74	1,305.73	1,320.01
		유로 EUR	1,298.63	1,304.81	1,345.99	1,352.79	1,357.38	1,345.33	1,334.08	1,342.43	1,348.96	1,332.91	1,334.53	1,377.09	1,404.83	1,388.29	1,371.13	1,342.37	1,361.65	1,398.50	1,446.41
		일본 JPY	996.27	1,069.75	1,105.07	1,041.45	983.44	1,028.59	977.38	985.49	951.34	955.93	975.17	973.2	969.36	956.51	959.12	956.76	956.68	977.31	990.52
		중국 CNY	166.4	168.58	170.88	177.43	191.57	192.16	191.82	188.78	190.68	194.13	193.75	198.19	198.37	189.53	185.47	183.16	185.97	189.1	191.6

9)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 2020년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 물가 상승, 이하이면 물가 하락
 10) 생산자물가지수 : 통계청, 2015년을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 물가 상승, 이하이면 물가 하락
 11)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실업률(%)과 고용률(%)을 조사
 12) 관광수지 : 한국은행
 13) 출입국관광통계 : 한국관광 데이터랩
 14) 환율 : 하나은행, 매매기준율 기준

연구원 소식

야놀자리서치 2023년 상반기 세미나



야놀자리서치는 경희대 H&T 애널리틱스 센터, 미국 Purdue University CHRIBA와 공동으로 6월 30일 2023년 상반기 세미나를 주최한다. 플랫폼 경제와 관광 산업이라는 주제로 마련될 이번 세미나에서는 플랫폼 경제 확산이 관광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 플랫폼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야놀자리서치 2023년 상반기 세미나: 플랫폼 경제와 관광산업
- 일시: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오후 1:30-5:10
 - 장소: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9F
 - 사전등록: <https://event-us.kr/yanoljaresearchevent/event/63571>

야놀자리서치 2023년 트래블 이노베이션 아이디어 공모전



야놀자리서치는 2023년 트래블 이노베이션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총상금 1천350만원이 걸려있는 이번 공모전은 관광 플랫폼 서비스 아이디어 개발, 플랫폼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전략 등에 관해 대학(원)생들의 참신하고 실효성있는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 접수기간: 2023. 07. 03.(월) ~ 07. 17.(월) 17:00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야놀자리서치 홈페이지 참조 (<http://yanolja-research.com>)

야놀자 임직원 대상 국내 에어비앤비 시장 성장 추이 및 현황 브리핑



야놀자리서치는 5월 18일 국내 에어비앤비 시장 성장 추이 및 현황이라는 주제로 야놀자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 브리핑을 실시하였다. 이날 발표는 국내 에어비앤비 시장의 연도별 매출액, 예약수, 리스팅수의 성장 추이를 살펴보고 지역적으로 어느 시도에 몇 개의 리스팅이 분포하고 있는지, 숙소 유형별 구성은 어떠한지 등을 들여다봄으로써, 국내 에어비앤비 시장의 큰 그림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에어비앤비 시장의 거래액은 1조1천289억으로 추산되며 총 466만여건의 예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을 제치고 국내 에어비앤비 거래액 1위를 달성한 지역은 제주도로 2022년 한해동안 2,817억원의 거래액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yanolja research

발행일: 2023년 5월 31일 | 발행처: 야놀자리서치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38, 동일타워 17층

이메일: yanoljaresearch@yanolja.com | 홈페이지: yanolja-research.com

Disclaimer: 본 보고서는 개별 사안에 대한 조연을 제공하거나, 야놀자의 입장이나 사업전략을 반영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야놀자리서치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하는 것은 금지되며, 동의 없이 본 보고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야놀자리서치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